치매예방물질 세종대왕상 수상!

특허청, 4Q 특허기술상 수상자로 한림대 송동근 교수팀 선정

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기술상 대상인 세종대왕상 수상자로 치매 예방물질을 개발한 한림대 송동근 교수팀이 선정됐다.

송동근 교수팀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응집과 그로 인한 독성을 함께 억제함으로써 치매를 포함한 뇌신경계 관련 질환의 원인치료를 가능케 한 <하이드록시신남산 유도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당귀 추출물을 함유하는 치매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을 개발했다.

치매의 원인인 신경독성 물질의 독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해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Acetyl Colin 농도 증가, 직접적인 신경세포 보호효과, 강력한 항산화 효과 및 신경세포의 재생 촉진작용 등을 발휘한다. 따라서 치매를 포함한 뇌신경계 관련 질환의 예방과 원인 치료가 가능하며 천연생약 추출물로 부작용 없이 안전한 약물임이 확인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싸이제닉과 한림대학교 교수팀의 산학협동연구의 결과물로 산학협동연구의 표본 및 성공가능성을 제시했다.

충무공상은 <미가류 상태인 점착성 방수시트의 제조방법 및 그것을 사용한 시공방법>으로 이대우 발명자가, 정약용상에는 <벽부착형 에어컨디셔너>에 관한 의장으로 LG전자의 김규진 선임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미가류 상태인 점착성 방수시트의 제조방법 및 그것을 사용한 시공방법>은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방수시공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발명으로 종래 가류고무 방수제들이 피착물에 수분의 함유량이 많으면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부착하고 시공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물과 친화성이 있는 점착부여제를 사용해 표면에 습기나 각종 오염물이 존재해도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내굴곡균열, 내산화, 내오존, 그리고 내열성에 효과가 있는 노화방지제를 첨가해 내크랙성이 뛰어나다. 또 방수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해 방수시공의 비용 및 기간을 줄임으로써 건축·토목공사의 난분야인 방수기술발전을 한 단계 진보시킨 발명으로 평가됐다.

2002년 11년째를 맞이하는 <특허기술상제도>는 우수한 발명과 의장을 발굴해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을 정착시키고자 우수 발명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로 수상등급에 따라 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정약용상, 지석영상으로 구분해 수상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31>